

왕의 반열에 선 사람들 얼굴에선 하나님의 빛이 나온다

성경 말씀은 영적말씀이며, 영적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그린 말씀이라고 이 사람이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잘못 되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되므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렸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지면 하나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도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옵시다.

하나님 마음은 영생의 확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간 시간이 이긴자 구세주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회생적인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영생의 확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찬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 드렸죠? 영생의 비결은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며, 회생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거죠.

영생의 영을 간직하면 죽지 않게 돼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면 항상 회생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이기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생적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

졌다가 되고 또한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가 되고 영생의 희망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나 깨나 초초로 영생을 추구하는, 영생을 항상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영생의 영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가 있는 거죠? 영생의 영을 간직하면 영생의 영은 사방의 영에 반대되는 영인 고로 사방의 영이 소멸되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되는 방법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사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인간 세상이 끝나는 고로 그것을 가지고 말세라고 하는 거죠? 말세라는 것은 끝 말(末)자 인간 세(世)자 인간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이 인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없어져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 되는 고로 승리의 하나님은 바로 승승장구로 마귀와 더불어 싸울 적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이 될 때 구세주가 된다고 그랬죠? 또한 구세주가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산다고 했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은 바로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 되는 고로 승리의 하나님이 되며, 승리의 하나님이 구세주이며, 승리의 하나님이 바로 성경상의 생명과일이며,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므로 승리의 하나님이 될 때 바로 믿음이 있다가 되고 이제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거죠.

믿음과 생명과일의 실체는



구세주 회회장님

영생의 영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생명과일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베소 2:8)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죽을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영, 영생의 영을 부여 주는 것이 선물이니 죽는 영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의 영인 고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영생의 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죠? 그러므로 믿음자체가 생명과일이요, 생명과일이 바로 영생을 주는 과일이니 데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영생과일이 죽을 영이요? 영생의 영이요? 영생할 영은 사랑을 이기는

영이요, 마귀를 이기는 영이요? 그러므로 영생의 영이 생명과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자가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과일이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므로 오늘날 생과일은 바로 구세주 주인공이 나 알고 있는 거지 보통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대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구세주만이 알고 있는 고로 오늘날 이 사실을 자세히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보아서 틀림없는 구세주야? 어쩌다 구세주야? 틀림없는 구세주죠?

죄를 되풀이해서 짓는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어

그러므로 틀림없는 구세주를 만난 사람은 틀림없는 구원이에요? 어쩌다 구원이에요? 틀림없는 구원이에요? 틀림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고로 여러분들이 눈길로나 마음길로나 입술로나 죄를 지으려야 죄를 유지해야 영생을 얻는 거지 죄를 지으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구세주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구세주가 전지전능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되풀이해서 지는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알만 지어도 구원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면 그런 크게 착각을 한 것이요.

죄라는 건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지 세 번 이상 범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범죄

를 되풀이해서 하는 사람은 지옥을 꼭 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려면 죄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안 져야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구세주하고 가깝다, 구세주하고 가족관계다, 친척관계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구원을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구세주는 가장 공의로운 구세주인 고로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가장 공정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눈길로나 마음길로나 입술로나 죄를 지으려야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구원이지 여러분들이 눈길로나 마음길로나 입술로나 범죄를 한다면 구원과 상관없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 없는 거죠?

그러나 구세주는 되도록이면 구원을 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영생을 주려고 하지만 심판대에 백보좌 심판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고로 범죄한 죄인은 지옥에 던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옥에 던짐을 받지 않으려면 범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지요? 죄를 지으려야 질 수 없는, 죄와 상관 없는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죄냐?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 중에 죄가 되는 거죠? 구세주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생활하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되느냐 하면 바로 성경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옵시다.

그러므로 구세주를 만나고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구세주의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되는 고

로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세주가 때가 되면 사면령을 내리려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고로 이 사람이 사면령을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죠? 그러므로 사면령을 내리려 사면령에 의해서 사면을 받았다면 바로 의인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또 범죄를 한다면 그건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야 돼요? 공로를 안 세워야 돼요? 공로를 세워야죠? 공로를 세워서 이제 죄와 상관 없는 자로서 깨끗하게 생활할 때에 마지막 날에 온 세계 만민들을 다스리는 왕의 반열에 서는 거죠?

왕의 반열에 서는 의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

왕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 만민들을 이제 살리고 이끌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왕 노릇을 영원무궁토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영원무궁토록 왕 노릇하는 왕의 반열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구세주와 같이 광명한 빛은 아니어도 빛이 나가며 그 빛으로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추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왕의 명령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왕의 반열에 서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왕의 반열에 서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하여 왕의 반열에 서서 이제 못 인생들을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02년 1월 11일 말씀 중에서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의 본능이다. 본능이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음 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공통되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이 본능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사람이 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이다. 한 번만 또는 간혹 누리는 것이었다면 본능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거에 사람이 늘 행복하게 살았었던 본능이 우리 속에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 뿐 현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는 학문이 바로 피의 원리론이면서 이 연재의 참의도이다.

행복하게 살려는 바람이 질병에 짝박히는 것은 왜냐하?

여러분들이 보고 느껴 와서 잘 알겠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는 학문과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본능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속 발전해 왔었던 것이다. 각기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봐도 확고한 참 행복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눈에 띄지는 않는다. 아무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괴롭고 고통이라는 까마득히 높은 절벽과 같은 한계에 봉착되고 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행복론은 수없이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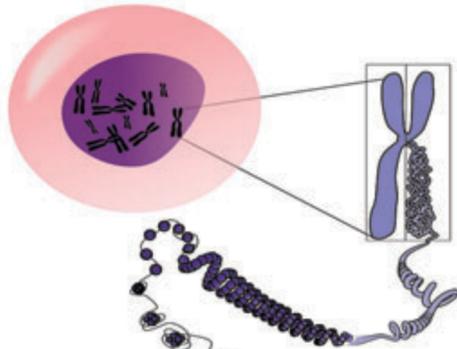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인류가 납득할 만한 후회없는 미련 없는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하기까지는 무리가 많다. 그것은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같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바른 말을 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삶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비취볼 때, 참 행복은 인간의 삶의 의미 추구요 진리인데 아직까지 인류가 납득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구 땅위에 존재하는 인류에게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그 행복의 보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고 본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누려 왔던 돈, 명예, 결혼, 권력, 향락, 예술 따위 등에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는 하나같은 인생의 선배들의 답변이다.

不老長生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이 문제인가(피의 원리)



인간 속에 불사의 유전자가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행복에 관한 진리론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실사 있었다고 해도 온전한 행복이 아닌 부분적인 행복, 불완전한 행복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분적인 행복감은 행복이라고 느끼는 개인의 감정일 뿐, 이것이 사람의 가슴 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진실의 소리와는 동떨어진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반드시 지향해야 할 궁극의 목표점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결론이 잘 입증된다.

그렇다면 과연 소수 한 두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 아닌, 인류가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행복에 대한 똑바른 정의, 곧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 인류가 노력하고 헌신해 왔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참다운 학문과 종교가 있다

면 바로 이러한 인간 생의 본질적 물음에 속 시원히 답을 해주고 그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마땅하다. 오늘날 종교와 학문의 중요한 목적이 변질되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편리함과 순간의 향락만을 추구해 하고, 또 돈벌이와 직업획득의 수단으로 편승되어 가는 잘못된 행보를 크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도 이 혁명적인 피의 원리 제시의 괄목할 만한 이유이다. 인간의 고귀한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길이길이 추구하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과 쾌락만을 탐닉하는 물질만능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종교와 학문의 종결을 고해야 한다는 중요한 목적도 여기에 포함된다.

참으로 문제는, 사람이 행복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불행의 나락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게 문제 중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 생의 본질적 의문도 바로 피의 원리에 대한 해법으로 또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인류는 왜 이러한 실수와 시행착오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머나먼 인생의 여정 길에 있어서 첫발과 첫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게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생의 머나먼 출발길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목적지가 어디이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가장 빨리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수순이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행복을 정확히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획득하여 길이길이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얼핏 보아 화려하게 보이진 않지만, 정곡을 찌르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목표이다.

피의 원리에 답이 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의 말은 결국, ‘행복하게 살면 계속해서 살아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불행하게 살면 죽느니 못하다’는 함축적인 의미의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토록 철학자들이 문제시 했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를 얼마나 무리 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논리와 사실적 체계를 완벽하게 다루어 내느냐 마느냐 하는 데 있지 않을까? 이것 또한 피의 원리로서 통쾌하게 해결된다.*

김주호 기자